

한국 야구 기세 올랐다... 2연패 정조준

2020 도쿄올림픽 녹아웃 스테이지 2라운드 이스라엘에 콜드게임 승 내일 미·일 승자와 준결승



2일 열린 도쿄올림픽 야구 녹아웃 스테이지에서 한국 대표팀이 이스라엘을 콜드게임으로 꺾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야구대표팀이 나흘 만에 다시 만난 이스라엘에 7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2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의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녹아웃 스테이지 2라운드 경기에서 이스라엘을 11-1, 7회 콜드게임으로 눌렀다.

도쿄올림픽에선 5회 이후 15점, 7회 이후 10점 차로 벌어지면 콜드게임을 선언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 콜드게임 승리를 거둔 팀이 됐다.

7월 29일 B조 예선 첫 경기에서 이스라엘에 고전하며 6-5, 연장 10회말 끝내기 승리를 거둔 한국은 나흘 만에 다시 만난 이스라엘을 완파했다.

미국에 패해 B조 2위로 녹아웃 스테이지에 진출한 한국은 1일 도미니카공화국에 끝내기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도 제압해 준결승에 선착했다. 한국은 미국-일본전 승자와 4일 오

후 7시에 준결승전을 치른다.

이날 한국은 선취점을 뽑으며 긴장을 풀었다. 1회말 선투타자 박해민(삼성 라이온즈)과 강백호(KT 위즈)의 연속 안타로 무사 1, 3루를 만들었고, 이정후(키움 히어로즈)가 박해민을 홈에 불러들였다. 추가점도 빨리 얻었다.

오지환(LG 트윈스)은 2회 이스라엘 선발 조이 와그먼을 공략해 중앙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위기도 있었다.

최원준(두산 베어스)이 제구에 애를 먹었고, 몸에 맞는 공과 볼넷으로 2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김경문 대표팀 감독은 조상우(키움 히어로즈)를 투입했고, 조상우는 빠른 공으로 이닝을 끝냈다.

한국 대표팀은 5회말 대량 득점하며 승기를 굳혔고, 7회말 에는 김해성이 '10점차'를 만드는 적시타를 치며 이번 대회 첫 콜드게임 승리를 완성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9전 전

승'으로 우승한 한국 야구는 올림픽 2연패 달성을 노리며 도쿄에 입성했다.

한국은 2차전에서 미국에 2-4로 패해 조 2위로 녹아웃스테이지를 시작했다. 도미니카공화국에 1-3으로 끌려가던 한국은 9회말 3점을 뽑아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

끝내기 승리의 기운은 녹아웃스테이지 2라운드까지 이어졌다. 한국은 나아진 경기력으로 일본 혹은 미국과의 준결승전을 준비한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탁구 9년 만에 메달 도전

단체전서 브라질 3-0 완파 여자 대표팀 동반 8강 진출

한국 남자 탁구가 한 번만 더 승리하면 9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거머쥔다.

이상수(삼성생명), 정영식, 장우진(이상 미래에셋증권)으로 꾸려진 한국 남자 탁구 대표팀은 1일 오후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단체전 8강전에서 우고 칼데라노, 비토르 이시이, 구스타보 스보이가 나선 브라질을 3-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한국은 중국-프랑스 경기 승자와 4일 오후 2시 30분 결승 진출을 다툰다. 여기서 지면 대진표 반대편 준결승전 패자와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게 된다.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 동메달,

2012년 런던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으나 지난리우 대회에서는 4위에 그쳤던 남자 대표팀은 앞으로 한 번만 더 이기면 9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수확하게 된다.

한국은 이상수와 정영식이 나선 1복식에서 이시이-스보이 조를 3-0(11-6 11-2 12-10)으로 제압, 기본종계 경기를 시작했다. 2단식에서는 장우진이 칼데라노를 3-0(11-6 11-8 12-10)으로 제압했다.

정영식이 3단식에서 스보이를 3-2(11-6 8-11 11-4 8-11 11-7)로 꺾으면서 한국의 준결승행을 확정했다.

앞서 오전 열린 여자 16강전에서는 신유빈(대한항공), 전지희(포스코에너지), 최효주(삼성생명)로 꾸려진 여자 대표팀이 나탈리아 파르티카, 나탈리아 바요르, 리첸이 나선 폴란드에 3-0으로 이기고 8강에 올랐다. 연합뉴스



남자 탁구 단체전 8강 브라질과 경기에서 정영식과 이상수가 득점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골프 대표팀 "폭염을 이겨라"

불볕 더위·낙뢰 등 날씨 변수 연습보다 컨디션 조절 중점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여자골프 대표팀에 대회 초반 폭염과의 싸움이 예고됐다.

선수들이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연습 라운드를 치른 2일 낮 일본 사이타마현 가스미가세키 컨트리클럽엔 섭씨 35도에 육박하는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코스에서 연습에 나선 선수들은 이동하거나 기다릴 때 우산을 쓰고, 얼음주머니를 목 뒤에 올려놓는 등 더위를 피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지난 달 29일부터 1일까지 열린 남자부 경기 때도 찜통더위와 비, 낙뢰가 수시로 오가며 선수들을 괴롭혔는데, 여자부 경기에서도 날씨 변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연패 도전을 앞둔 박인비(33)를 비롯해 고진영(26), 김세영(28), 김효주(26)는 이런 날씨를 고려해 대회 전 무리하게 연습하기보다는 하루에 9개 홀 정도를 돌려 코스에 적응하며 체력 유지와 컨디션 조절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인비는 "하루에 18홀을 모두 도는 것도 생각해봤으나 연습에서 너무 소모하면 경기 때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습장이나 코스에서 보내는 시간을 좀 줄이고 한다. 이런 더위엔 휴식을 취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진영도 "공황에 도착해 들어오기까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언니들, (김)효주와 수다를 떨며 온 게 추억이 될 것 같아 길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회복도 잘됐다"며 "오늘과 내일 9개 홀을 치면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여자 골프 박인비(오른쪽)와 고진영이 2일 가스미가세키 컨트리클럽에서 기자회견 후 연습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여자골프는 4일부터 이 골프장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노형중 정연수 전국테니스대회 단식 우승

소강배전국남여중고 대회

노형중학교 2학년 정연수(사진)가 제49회 소강배전국남여중고등학교 대항테니스대회 남중부 단식 정상에 올랐다.

정연수는 지난 7월25일부터 8월2일까지 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출전, 남중부 단식 결승전에서 3번 시드 황효원(김해시 테니스)을 만나 초반부터 경기를 리드하며 스코어 8-4로 우승했다.

정연수는 "그간 제주도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것을 떠올리며 플레이 했다. 잘했던 것보다 안됐던 플레이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집중했고 상대 선수보다 조금 더 움직이고 빠른 템포로 반응했던 것이 승리의 요인인 것 같다"고 전했다.



정연수는 2021 제1차 ATF 양구 국제주니어 테니스 대회 복식 준우승과 2021년 전국 종합 테니스대회 단식3위·복식 준우승, 제56회 전국 주니어테니스 선수권 대회 단식 준우승·복식 우승, 김천KMHTF 오픈 춘계 전국 주니어 테니스 대회 준우승 등 올해 꾸준히 입상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추가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제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대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